

## 후원안내



###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17년 1월 후원미사는 16일, 2월 후원미사는 20일, 3월 후원미사는 20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 2016년 11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 수입내역

수입 총액	22,693,292	전월이월금	1,039,432
지 로	2,058,360	우리은행	9,188,000
국민은행	5,169,000	하나은행	1,116,000
조흥은행	125,000	신한은행	1,200,000
외환은행	442,500	제일은행	215,000
농 협	1,295,000	기업은행	300,000
우 체 국	75,000	지정기탁	470,000
		교구보조	-

####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7,0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벳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6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소 계	10,0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5,00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5,285,000	운영비 등
지정기탁금	지정기탁	470,000	산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지출 총액	20,780,000	잔액(이월금)	1,913,292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6. 12 / 제6호

펴낸날 2016. 12. 19 |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 펴낸이 남창현 | 편집 김평안 |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 팩스 (02)924-9972 |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 “이주민 200만 시대, 차별없는 사회로”

-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를 위한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성명서 -

부처님도 예수님도 이주민이셨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부처님과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다. 그리고 부처님도 예수님도 모두 이주민이셨다. 진리와 이주는 필연이다. 진리가 한 곳에 머문다면 진리일 수 있겠는가. 오늘, 불교인과 원불교인들은 "존재하는 모두가 부처다." (불경, 원불교정전)라는 말씀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지 않았느냐?"(공동번역 출애 22, 20)는 말씀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새겨들어야 하리라.

돌아오는 12월 18일은 UN이 2000년에 제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이날은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가진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동시에 이주민에 대한 노동착취, 인권침해, 인신매매 그리고 인종차별이 명백한 범죄임을 확인하고 각국의 개선의지를 재확인하는 날이다.

그러나 이주민 200만 시대인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착취의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정책이 매우 부실하기에 크나큰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UN이주민권리협약을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지속적으로 개악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가 2014년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해 '인신매매 제도와 같다'는 비판을 하기 까지 할 정도로 국제적 인권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4년 10개월 기간 동안 자발적 직장 이동을 단 한 번도 할 수 없으며, 2014년 7월부터는 퇴직금마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고, '출국 후 14일' 이내에 받게 되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이주노동 백년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요, 율행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겠는가.

비현실적인 정책과 이로 인한 부작용의 사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 중, 현재 5인 미만의 농업 기업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자신의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모른 채 일하던 노동자들은, 산재 사고를 당할 경우 막대한 치료비와 장애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이주민은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가정의 40.7%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하였고, 편견과 차별로 인해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율도 38.3%에 달했다. 이는 다문화가정 역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국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난민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어떠한가. UN난민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4.5%(2016년)로 세계평균 37%(2015년)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진입에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단일민족의 신화와 폐쇄적 민족주의에 대해 깊이 재고(再考)하지 않아 왔고, 경제적 발전 이후 아시아 저개발국에 대한 우월의식도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주민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와 법률은 미흡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주민을 위한 인권적 접근과 제도 개선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포용력을 높이고 국격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현재 UN은 우리 정부에 대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법률을 제정하거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 법률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허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반인륜적 범죄인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서도 이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UN의 권고에 따라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제재하도록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 정책과 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종교적 양심과 신앙에 따라 현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 반인권적 차별 정책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며, 동시에 정부와 국회의 인식 전환과 각성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또한 앞으로 각 종단의 신도들에게 이주민들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위한 기도와 활동을 추진하며, 국내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불교인과 원불교인들은 "모든 존재를 부처로 모시자."(불경, 원불교정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과 신앙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을 차별없이 대하신다."(공동번역 로마서 2, 11)는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리라. 부처님도 예수님도 이주민이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인종차별금지 법률을 제정하라!**

**하나. <UN이주민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하나.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2016년 12월 14일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공동체 소식**

**위원회 소식\***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주관으로 "이주민 200만 시대, 차별없는 사회로"라는 주제로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를 위한 성명서발표가 12월 14일에 국회정론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성명서 본문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교회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보고, 그들의 궁핍을 덜어 주도록 노력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다."(교회헌장, 8항)고 고백합니다.

2014년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주교들에게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세상을 향하는 교회, 사회의 변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은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연대하여 '길을 나서 사람들 곁에 들어가 동행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명동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이주사목위원회의 담당으로 이주민과 난민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며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김장김치담그기



▲ 세종 연극관람



▲ 우희용 축구선수 방문

**2016년 기부금영수증 발송 안내\***

2016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입금하신 기부금을 확인하여 2017년 1월초에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2016년 안에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시려는 분이나 가족명의로 변경하여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후원회원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우선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사랑하는 이주사목위원회 후원회원 여러분!!

베풀어 주신 따뜻한 사랑에 하느님께서 더 크신 은총으로 되돌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6년 한 해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덕으로 많은 이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드리며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